

## 11강 영광의 서막(12장)

### 오늘의 포인트

-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12장부터 요한복음의 주제다.
-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'영광'의 관점에서 해석한다.
- 영광의 때가 왔다!

### 고난 주간의 기록(12~19장)

(요 12:1) 유월절 엿새 전에—세번째 유월절(요한복음에 기록된)

주님의 고난 주간의 시작을 알림

영광의 서막

###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다(1~8)

[베다니에서의 저녁식사]

- 장소: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(마 26:6~13; 막 14:3~9)
- 사람들: 나사로와 자매들도 배석
- 마리아의 행동: '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'(약 0.5리터)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진동했다.
- 가롯 유다: "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?" (5)
- 가롯 유다에 대한 성경의 평가: "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. 저는 도적이라. 돈 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(6)"
- 주님의 변호: "저를 가만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.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(7~8)."

[사건의 의미] 오직 마리아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고 있었다!

- 예수님은 공생애의 분깃점이라고 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.
-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'누가 크냐'는 논쟁을 벌인 것은 그들의 무지를 드러낸다.
- 핵심은 가롯 유다가 말하는 구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다!
- 마리아가 등장하는 자리에서 그녀는 언제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다.
- "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"고 하심이나 마태복음에서 "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" (마 26:12)
- "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" (마 26:13) —그녀는 십자가 죽으심의 핵심을 깨달았다!
- 마리아는 주님의 장사를 위하여 준비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다!

### 때가 다가오고 있다(9~11)

- 나사로 표적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고
- 예수님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모였고
- 예의주시하던 산헤드린은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를 죽임으로써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다.

## 예루살렘 입성(12~19)

[예수님의 태도가 변했다!]

- 백성의 환호를 그대로 받으시는 예수님
-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
- 때가 왔다!

[백성의 환호](13)

- 종려나무 가지
  - 기쁨의 상징이고 명절 특히 초막절에 그들의 기쁨을 표현하는 도구(레 23:40)
  - 주전 141년 시몬 마카비우스가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완전한 독립을 쟁취했을 때, 승리의 퍼레이드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.
- “호산나 찬송하리로다.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”
  - 지금 구원하소서!
  - 시몬 마카비우스가 했듯이!

[나귀를 타심](14~16)

-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

(슥 9:9)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

- 야곱의 예언의 성취(창 49:10~11)

-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 대(對) 정복자로 백마를 타고 오실 왕(계 19:11)

(계19:11)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

## 온 세상의 구주 (20~26)

[헬라인들이 찾아오다]

- 헬라인들—유월절에 순례하러 온 ‘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’(20)
- 예수님의 반응: “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”(23)—처음으로 그 때를 현재 시제로 말씀하심
- 니고데모—사마리아 여인—헬라인들
-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할 때(24).
- 그리스도의 영광은 자기 영광을 거절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순종이다.
- 두 개의 생명: ‘프쉬케’와 ‘조에’

(요 12:25) 자기의 생명(프쉬케)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(프쉬케)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(조에)하도록 보전하리라

- 프쉬케 — psychiatry(정신의학), psychology(심리학); 정신, 마음, 영혼, 자아, 독립적 의지를 의미하지만, 인간이 영과 육의 이원론으로 이해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이 단어는 목숨, 육신의 생명을 의미했다.
- 조에 — 영원한 신적인 생명,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생
-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?

## 아버지의 영광 보다 더 큰 목적은 없다(27~33)

[아들의 고뇌] (27)

(요 12:27)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

- 예수님의 죽음은 순교가 아니다.
  - 마르틴 루터, “이 사람보다 더 죽음을 두려워했던 이는 없다.”
- 아들의 고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,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다.

[아들의 소원](28a)

(요 12:28a) 아버지여,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

- 사명에 대한 인식(27b,31~32)
  - 이 때를 위해 오셨고(27b),
  -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주님은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고
  - 모든 사람을 주님께 이끄실 것이다(32).
- 궁극적 목적 인식(28a)
  -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함
  -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실 때,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. “아버지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, 그리고 네 삶 전체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너의 인생의 최고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.”

## 고난받으시는 인자(34)

### 인자가 왜 죽는다고 하는가?

(요 12:34)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? 이 인자는 누구냐?

1. 우리가 알았던 것: 구약의 예언들(삼하 7:12~13; 사 9:7; 단 7:14).  
'메시아의 권세가 영원하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나라다.'
2. 우리가 몰랐던 것: 고난받는 종의 노래(사 42:1~7; 49:1~6; 50:4~9; 52:13~53:12)  
'메시아는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이다.'

## 인자는 누구인가?

1. 셈어(Semitic languages)의 관용적 표현: 'a man'
  - 아들 = '바' 혹은 '벤'
  - 바나바 = '위로의 아들' = 위로를 잘 하는 사람
  - 베냐민 = '내 오른 손의 아들'
  - '인자' = 사람의 아들 = 한 개별적인 '사람'을 의미
  - 주님께서 당신을 인자라고 하실 때, 일차적으로 주님의 겸손함을 드러내고, 주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기뻐하심을 보여준다.
2. 다니엘서의 인자(단 7:13~14): 'the Man'
  - 세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정권을 가진 한 분이 나타날텐데, 그가 하나님 곧 '옛적부터 계신 자'로부터 폐하지 않을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실 것이다.

- 그분은 ‘인자 같은 이’로 묘사되었고,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분명한 메시아 예언으로 여겨졌다.
- 이 인자 같은 이가 앞선 모든 짐승들로 대표되는 제국들을 심판하실 분이시다.
-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구름타고 오실 것을 기대했다.
-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실 그 분이시다.

## 주님께서 ‘인자’ 용어를 사용하신 이유

1.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
  - ‘메시아’ 칭호는 거의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계열의 왕으로 오시는 정치적 존재로 이해되었다.
  - 주님은 메시아 용어가 초래할 오해를 아셨고, 이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과는 전혀 달랐기에 오해를 피하시려고 ‘메시아’ 칭호를 자제하셨고 대신 다소 모호한 개념인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.
2. 오해를 주시려고
  - ‘인자’ 용어는 사람들 사이에서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메시아 칭호였다.
  - 때론 그저 ‘한 사람’을 의미할 수도 있고, 때로는 구름타고 심판을 행하러 오시는 메시아일 수도 있었다.
  - 주님은 이 모호함을 이용하시면서 당신의 메시아되심을 표현하셨다.

##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인자의 의미

1. “하늘에서 내려오신 분”(3:13; 6:62), “태초부터 계신 이”
  - 인자는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분
2. “고난과 수치, 죽음을 당하시는 분”(3:14~15; 8:28).
  - 주님께서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암시한다. 즉, 주님께서 오신 사명과 관련하여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다.
3. “최후의 심판자”(5:26~27; 계 14:14).
  - 주님은 최후의 심판자로서 인자를 언급하셨다. 요한복음 5:26~27을 봅시다.  
(요 5:27)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

## 주님의 마지막 대중설교(35~36)

(요 12:35~36)

35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

36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

-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 대중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—요한복음에 기록된
- 이 말씀 후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떠나 숨으셨다(36). 이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심.
- 빛과 어둠이라는 주제는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지배하고 있는 주제
- 대중을 향하신 주님의 마지막 복음의 명령—“빛이 있을 때, 빛을 믿으라”

## 하나님 없는 세상/사람

(요 12:35)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.

- 세상의 교만: 우리의 '빛'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.
- 세상의 딜레마: 종착지를 모르고 자기를 믿고 사는 태도

## 좋은 소식

(요 12:35)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

- 명제: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(1:4~5, 7~9; 8:12).
- 주의: 기회는 잠깐이다.
- 경고: 어두움에 붙잡히지 말라.

## 복음의 명령(초청이 아니다!)

- 자신만만함을 내려놓아라.
- 빛이신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의지하라.

## 복음의 약속

(요 12:36)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

- 빛의 아들'이란 표현은 인자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관용적인 표현이다.
- 여기 빛에는 정관사가 없는데,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고,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의 빛이 되리라는 말이다.

## 메시아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인가

(요 12:37)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

## 예언의 성취

(요 12:38a)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

(요 12:39)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

(사 6:9~10)

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

10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

- 이스라엘의 불신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(막 4:12; 눅 8:10; 요 8:40).
- 불신은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형벌(judicial hardness)이다(롬 1:21,24,26,28).
- 이스라엘의 불신은 그들의 불신의 결과였다(마 13:13).

## 연약한 믿음인가, 거짓 믿음인가

(요 12:43~44)

43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

44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

- 믿었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를 당할까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관리들은 ‘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(요 12:42~43).
- 고백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.  
(롬 10:9)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
-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(약 4:4; 요 5:44).  
(요 5:44)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

## 나를 믿어라(요 12:44~50)

1. 불신앙과 신앙으로 반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명령(44)  
(요 12:44)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
  - “외쳐 이르시되” → “나를 믿으라.”
2.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.  
“내가 하나님, 천지를 창조하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이다.”
  -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기 계시다(요 1:18).
  -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 /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.
  - 교회에 속했다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 /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교회에 속한 자다(요 17:21).
3. 예수님이 오신 목적: 빛과 구원(46~47)
  -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(진리) 가운데 행한다(46~47).
  -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(47).
4. 예수님의 말씀이 열쇠다.
  -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(49,50b).
  -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날은 온다(48).
  - 예수님의 말씀(하나님의 명령)은 영생이다(50a).

## 오늘의 적용

-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는가?
- 인자의 영광에서 낮아짐의 영광을 보라.
-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라.